

한국인 교육관 문제 있다

미국에 있는 내 한국인 친구 한 명은 최근 서울의 부모로부터¹⁴¹ 이런 전화를 받았다. “돌아오지 말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알아 봐. 애들을 한국 학교에 보낼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고.”¹⁴²

한국 학생들의 독해력과 수학 실력이 미국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¹⁴³ 한국에선 교육 시스템이 일반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¹⁴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관해 미국의 교육 제도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론 한국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이 모든 해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교육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와 교육 시스템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인들은 교육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이마에 명문대 도장을 찍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마치 군비 경쟁을 하듯¹⁴⁵ 교육비 지출 경쟁을 한다. 옆집 아이가 학원을 4곳에 다니면 우리 아이들은 5곳에 다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로 수입의 절반 이상이 지출되고 아이들은 전혀 놀 시간이 없어도 말이다.¹⁴⁶

미국인의 눈에는 한국의 부모들은 거의 미치기 직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¹⁴⁷ 입시 철에 한국의 어머니들이 학교 교문에 서서 자식이 시험을 잘 치기를 비는 모습은 미국에서라면 극단적인 일로 간주될 것이다.

이런 경쟁을 그만두려는 부모들은 비용이 얼마가 들든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려고 한다. 미국 유학의 경우엔 그것이 가족들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어린 자녀들이 섹스, 마약, 총기 등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잘 적응한 경우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몇 달 전 나는 컬럼비아대 법대의 한국 유학생 6명과 저녁을 할 기회가 있었다. 이들 중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학생은 1명뿐이었다. 우수한 두뇌의 유출은 장차 한국의 장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¹⁴⁸

한국인들이 모든 비용과 위험을 무릅쓰고¹⁴⁹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은 몇 가지 교훈을 줄 수 있다.

첫째, 미국에선 암기보다는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다. 한국에선 상상이



안 가는 일이겠지만 나는 학창 시절 입시를 위해선 단 하루도 공부해 본 적이 없다. 미국에선 아무리 극성스러운 부모라도 학생들을 주입식 학원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보내지 않는다.

둘째, 학생들을 능력에 따라^{14.10} 가르쳐야 한다. 교사에게 능력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한 데 모아 가르치는 것은 악몽과 같다. 대부분의 미국 고교는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차등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내가 다니던 고교에선 공부 잘 하는 학생들에게 인근 대학에서 수강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있다면 과외의 필요는 줄 것이다.

셋째, 전문대학에서 4년제 명문 대학으로 편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 학생들에게 '2번째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 교육의 장점 중 하나는 고교 시절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도 명문대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다니던 버클리 대학에선 편입생들을 정규 신입생과 똑같이 환영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당면한 교육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14.11} 보수적인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어떤 어린이도 뒤쳐지지 않도록 하겠다”며^{14.12} 교육 재정 증액을 공약한 것은 미국 교육이 기초적인 레벨에서 실패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미국에선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도시와 교외 지역 학교간의 재정 및 학업 성취도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학교 재정은 지역 주민들의 재산세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주 인구가 적은 도시 학교는 교외 지역에 비해 극히 적은 지원을 받는다.

궁극적으로 교육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한국인들의 교육관이 바뀌어야만 한다. 이제 한국의 부모들은 지갑을 내려놓고^{14.13} 교육비 지출 경쟁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인들이 교육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않는 한 모든 미래의 교육 개혁은 크게 훼손되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14.14} 인생의 성공은 개인의 능력에 달린 것이지만 명문 대학 진학에 달린 것이 아니다.^{14.15} 한국인들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야 할 것인가. 이룰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인가.

한국, 세계에서 교육열 가장 높은 나라

‘부모가 굶더라도 자식 공부는 시켜야 한다’는 한국의 높은 교육열이 수치로도 입증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1 일 미국의 교육과 소득불평등 수준에 대한 분석 기사에서, 한국을 세계 주요국 가운데 교육열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았다. NYT 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주요 23 개국 성인(25~64 세)의 학력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경우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 학력이 높거나 같은 경우가 96%에 달했다.

이는 조사 대상 23 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학력이 부모세대 보다 높은 비율은 58% 였고, 같은 경우는 38%였다. 자녀가 부모보다 최종 학력이 낮은 경우는 약 4% 였다.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아 부모 보다 ‘더 배운’ 자녀의 비율이 높은 곳으로는 러시아(59%), 핀란드(56%), 벨기에(47%) 등이 꼽혔다.

반면 미국의 경우 성인 남녀 가운데 부모세대 공부를 더 많이 한 비율은 30%에 머물렀는데, 이는 OECD 전체 평균(40%)보다 10%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미국은 23 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0 위에 머물렀다,

NYT 는 “1970, 80 년대 이후 미국에서 교육격차가 커지면서 임금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소득 불평등을 막는 방법으로 교육격차의 해소를 꼽았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Kaynak: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409121491119555>

Konu ile ilgili sözcükler

- 교육열 : 교육에 대한 열의
- 명문대 :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다수 대학 가운데서 특히 우수한 교학 수준을 보이는, 저명한 대학을 이르는 말
- 독해력 : 글을 읽어서 이해하는 능력.
- 우수하다 : 특별히 뛰어나다
- 장래 : 앞으로의 전망이나 가능성
- 암기: 기억할 수 있도록 외움
- 비판적 사고 : 어떤 사태에 처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동적인 사고
- 경향 : 사상이나 행동 또는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성
- 개혁: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
- 극성스럽다 : 어떤 일을 하려는 마음이나 행동이 지나치게 드세거나 적극적임
- 깨달다 : 이해하여 참뜻을 환하게 알게 되다.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다
- 경쟁: 같은 목적에 대하여 서로 이기거나 앞서려고 다툼
- 차등화: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 차이가 나게 됨
- 성취도: 목적인 바를 이루어 낸 정도
- 격차: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등의 동떨어진 차이

Tartışma Soruları

- Kore'deki eğitim sistemi ve eğitime olan bakış açısı hakkındaki düşünceler
- Korelilerin eğitim ile ilgili eğilimleri ve bu eğilimlerin olası sonuçları nelerdir?
- Koreli ebeveynlerin eğitim hakkındaki tutum ve davranışları